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3
Mar. 2014
Vol.2 No.3

- '주안에삶'
- 웹사이트 새단장
- 교구 / 사역국 활동
- 칼럼 / 화보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다윗의 삶,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좇아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65:1-5)

NEW Sunday Message Series
최혁목사의 주일예배 설교시리즈 [예.수.님.의.기.적.시.리.즈]

2014
기적의
Miracles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고된 연습'

하나님 은혜 새롭게



전은순 권사

주안예삶을 통하여 첫 사랑(초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였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작은 죄까지 보게 하셨고, 나의 어리석음과 완고함과 교만함도 보게 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습과 배움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섬김과 나눔으로 저에게 성령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습관적인 신앙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리더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주안예교회 평신도 사역훈련원(담당 교역자: 한대일, 이정의 전도사)에서 실시하는 '주안예양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주안예삶(이하 주삶)' 첫 과정이 끝났다. 총 3개 과정 18주 코스중 첫번째 코스중 첫번째 코스는 거듭남, 회개, 믿음과 용서, 순종, 하나님의 가족, 성령충만 등 6개의 주제를 다루었으며 6주에 걸쳐 진행됐다. 2월 첫 주에 시작한 벨리채플은 토요일 3개반, 수요일 3개반 총 6개 클래스에 50여명이 등록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고, 체험하는 훈련을 받았다. 벨리보다 먼저 시작된 세리토스채플은 3기가 끝났다. 주안예교회 성도들의 필수코스인 성경통독(18주 과정)과 주삶은 연중 계속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장성해 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삶에 참가한 성도들의 모습과 소감을 들어본다.

기쁨과 감사



전지연 권사

6주 동안의 "주안예삶" 양육훈련 수업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Table Leader의 열정과 지혜로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은혜롭게 끝났다. 최혁 목사님의 비전과 계획 아래 "주안예삶"을 공부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특별히 배운 것 중에서 회개, 믿음, 순종에 관한 말씀은 영원히 내 마음 속에 담아두면서 느낀대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바이다. 열 명의 훈련생들 간에 그동안 이름도 직분도 모르고 지냈으나, 서로 통성명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니 더욱 가까워진 기쁨이다. 서로 알고 지내며 은혜를 나누는 성도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참 소중한 부분이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소감문을 쓰는 것이 하도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으나 잘 견디면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게 되어 만세를 불렀는데, 또 수료자 소감문을 쓰게 되어 걱정을 하면서도 나에게 소감문까지 쓸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김헬렌 권사

그동안 주안예삶의 과정을 통해 중생(거듭남), 회개, 믿음, 순종, 하나님의 권속, 성령충만에 관해서 배우며 토론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고 영의 양식으로 살을 찌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자이신 김정혜 권사님은 해박한 지식과 많이 준비해오신 영의 말씀들을 풍성히 주셨고 우리는 배움으로써 빈곤한 영의 허기를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므로 세상이나 아니면 하나님이나를 선택해야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함이 우리의 본분인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야하고 롬 12:2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할만하며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쁨이든지 말과 행위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애써야함이 우리의 본분을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성정을 못박으며 매일매일 마음관리를 더 넓게 받게 길들이고 욕심을 비움으로써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인이신 그분께 맡기며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석보다 빛나는 말씀에 기준을 두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도 일상의 험난한 빙판을 가볍게 뛰어오르는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며 푸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은 많이 웃고 찬양하며 행복해지는 말을 많이 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 봅니다. 행복을 키우는 마음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자고 또 행복의 키를 키우기를, 또 외모 못지않게 내면이 복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성실한 삶에서 오는 조용한 기쁨을 쫓 피우렵니다. 그 래야만 삶이 곧 빛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밝은 햇살을 들여놓고 새 봄을 맞는 기분으로 발돋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불을 켜보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매님들과도 친숙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하는 신앙적 체험을 한 귀한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숨쉬고 있는 자체를 감사하면서 제 마음을 정리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주안예교회와 더 나아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클릭! www.in-christcc.org 주안에교회 활짝 폈어요

■ 새단장 끝난 교회 웹사이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 성장해 가는 주안에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올 연초부터 준비해 드디어 그랜드 오픈한 주안에교회 웹사이트, 교회 안내와 교구 가족, 사역국의 활동 모습, 행사 사진과 비디오 등이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직은 기본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진 단계이지만, 벌써 밸리, 세리토스 23개 교구와 30여개 사역국 방에는 앞다투어 새로운 소식과 사진을 올리고, 격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웹사이트를 만든 조경일 간사는 “주안에교회와 교우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또 모듈을 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관리, 업데이트를 맡은 이현경 간사도 “교구, 사역국에서 활동 소식이나 사진을 올릴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고 밝혔다. 주안에교회 교우들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증작업을 거치면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올릴 수 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저작도 꾸미지 않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면 썰렁



한 공간에 불과 할 뿐이다. 멋있고, 산뜻하게 지어진 또 하나의 사이버 주안에성적인 웹사이트를 예쁘게 꾸미고, 자주 드나들어 사랑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문의: 이현경 간사 (213) 703-6861, 이메일 zoe.ps119@gmail.com〉

■ 체육국 소식

온 가족 함께 나오세요 ~ 신바람 운동



주안에교회 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밸리, 세리토스채플 체육국이 활성화 되면서 축구, 탁구, 배드민턴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참석 교우들도 크게 늘고 있다.

축구(팀장 오찬국집사)는 종전 그라나다힐스 고교 운동장에서 3월부터 ‘전용구장’인 글렌데일 스포츠 콤플렉스(2200 Fern Ln, Glendale, CA)로 장소를 옮겨 매주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장소가 넓고 쾌적해 축구뿐만 아니라 동반가족들이 함께 운동하기에 딱 맞는 곳이다. 3월 30일 주일엔 50여명의 주안에 가족들이 참가해 열띤 시합을 펼쳤다.

팀장 오찬국 집사는 “실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함께 연습하고, 교체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가족들이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밸리채플 체육관에서 주일 오후와 수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배드민턴과 탁구 모임도 매니아들이 몰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성태 팀장(탁구) 김진홍 팀장(배드민턴)에게 문의하거나 주안에교회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 교역자 소개/ 박정환목사

절망 가운데 만난 주님, 내 삶의 인도자

저는 서울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병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기에 어머니는 주야로 일을 해야만 했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어린나이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든 나머지 중학교 3학년 때 결국 자살을 시도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 정환아" 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이 한마디는 "나"라는 존재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들어간 대학에서 김준곤 목사님(한국CCC전종재)과의 만남은 제인생의 가장 뜨거운 20대의 시기를 주님을 위해 불꽃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대학 캠퍼스와 여러 해외지역(일본, 중국, 그 외)을 돌며 젊은이들에게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괴물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세상을 변화 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훈련시키던 제자 중에 너무나 신실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저의 평생의 동역자가 된 정안나 사모였습니다. 지금도 야내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의 꿈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던 저는 전공을 살려서 디자인작품을 통해 복음을 좀더 아름답게 나타내고 싶은게 비전이었습니다. 진로가 정해지던 해 아이러니하게도 두 곳의 콜링을 받게 되었

습니다. 하나는 사역하던 선교회의 전임사역자의 길이었고 또 하나는 대기업의 디자인 기획팀이었습니다. 둘다 저에게 너무 귀한 길이었기에 모든 걸 접고 기도원으로 들어가 진로를 놓고 간절히 금식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두렵지만 사역자의 길이었습니다. 몇 번을 기도해도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역자로서의 길이 너무 두려워 걱정과 근심 속에 집에 돌아왔는데, 수년간 만들어 놓은 디자인 포트폴리오와 모든 장비들이 도둑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퇴로를 확실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임사역자의 길이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주안에서 성도님들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비전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세상에 파송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분의 길을 따라 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제자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 전도국 소식

밸리채플 전도국(국장 김용수장로, 부장 안덕문 집사) 전체 모임이 지난 3월 22일 16명의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예배 후 김용수 국장으로부터 전도국 사역에 대한 브리핑이 있는 후, 팀원들간 자기 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기본적인 전도국의 사명과 비전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인들과 타민족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최형 담임목사의 설교 CD나 전도지를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하고, 교회행사나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 마켓과 업소 활용, 노숙자 돕기, 축구장 봉사 등을 통한 전도와 설교 CD에 찬양과 담임목사의 전도 메시



지 추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밸리 갤러리아, 그린, 서울(라크라센타), 클렌데일 에 한국마켓과 식당에 전도 담당

자를 지정하고,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 대한 전도 계획도 포함, 실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자녀들에 수준 높은 '과외' EIKON 보내기 잘했어!



토요일 아침 단잠포기 '현모현처' 되기

■ Mother Wise 클래스

3월 8일 10주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Eikon이 시간이 지날수록 반짝 반짝 빛난다. 나도 모르게 구슬땀을 흘리게 만드는 축구교실부터 절로 몰입하게 만드는 다양한 악기들, 상상의 나라를 펼쳐다 보면 만들어지는 미술 클래스와 2% 부족함을 채워 완벽을 추구하는 학과수업 반까지 총 12개 수업이 진행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 되시는 교인들의 재능기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선생님들은 학생보다 일찍 토요일 새벽단잠을 포기하고 교회로 먼저 모여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9시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9시 30분 첫수업을 하고 10시 30분 15분의 쉬는 시간 후 12시까지 2교시가 끝난다. 쉬는 시간에는 어머니들이 순번을 정해 아이들에게 점심같은 간식을 정성으로 제공한다.

피곤한 생활전선을 벗어나 교회를 와야하는 주일을 빼면 유일하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토요일을 2세 교육에 헌신한 선생님들은 이 시간이 그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준다고 말한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생활의 활력소를 찾아서 정말 행복하다는 말에는 진심이 가득 묻어 있었다. 선생님들은 한 주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를 또 그 다음 주를 기대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 진정 보람되어 이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한다.

나눔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어릴 적 여름성경학교에서 빠지지 않았던 노래가 기억난다. 사람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뼉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



주면 풍성해져 땅위에 가득하네... 한 선생님의 재능기부가 적게는 둘 많게는 20명의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선생님들의 섬김이 참된 나눔이 아닌가 한다.

같은 시간 책방에서 진행되는 또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Mother Wise,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열심이 만드는 클래스다. 토요일 늦잠 자려는 아이들을 일르고 달래거나 본인의 밀린 잠을 포기하고 Eikon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삼삼오오 짝을 지어 스타벅스에서 수다를 떠는 대신 하나님께 양육의 지혜를 구하기로 한 진정한 현모. 지혜로운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성장하면서 나를 아프게 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재현되는 현실을 직면할 때 마다 느끼는 좌절감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그리고 더욱 현명해지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리다.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 이 좋은 클래스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9명의 열혈맘들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아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는 현명한 어머니가 되기 위한 10주 과정이 이들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할 것이라 기대된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단지 숫자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리라는 행복한 꿈을 꾸게 하는 시간이었다. 다음 기수에는 좀더 많은 학교와 어머니들이 더욱 다양한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채은영 기자 |

... 4월 교육부 목회계획 ...

- 4/12(토) ICY Cerritos-Ice Skating
- 4/20(일) Easter Service
- 4/26(토) ICY Valley -Spring Outing



주안에
예배는...



설렘과
간절함...



■ 문학과 삶

“ 하늘같은 마음으로 ”

김행도

“사랑을 해 봐야 알지?” 이런 사랑 해 보셨어요? 이걸 우리 인간들이 분류하는 네가지 사랑 중 어느 것일까요?

에로스(애정), 필리아(우정), 스토게(공화), 그러나 초자연적인 사랑 아가페(자비)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지성인 C.S. 루이스는 “네가지의 사랑”이란 책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는 전능자의 사랑”이란 부제로 1960년에 출간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루이스의 생애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육십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던 루이스가 조이 데이비드먼 여사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조이는 당시 골수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이었지요. 루이스는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조이에게 청혼하고 그녀의 병실에서 눈물겨운 결혼식을 거행했고 조이를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눈을 감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의 세력이 주춤하면서 회복이 시작된 것이지요. 루이스는 결혼한 1957년 3월부터 조이가 죽은 1960년 7월까지 약 4년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슬픈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네가지 사랑”이 씌어진 것이지요.

루이스는 조이와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조이를

나 사랑꽃이 피는 날
운유함이 가슴에 가득한 날
구름을 보듬는 하늘로 가고싶어라

마음에 새긴 폭풍우가 부는 날에도
그리움 애잔히 피어오르는 날에도
세상의 동지를 보듬는 하늘로 가고 싶어라

물구름이 바람과 춤을 추는 곳
새들이 꿈꾸며 사랑노래 부르는 곳
나도 꽃송이 피우는 하늘과 같은 사랑
가슴에 품어 그 사랑하고 싶어라

고운님 얼굴에 웃음꽃 피우게하는
하늘같은 사랑하고 싶어라

아침이슬 풀잎에 살며시 내려앉아
마음의 청초함 살아나면
햇살이 이슬을 저 멀리 데려가면
나는 너를 꿈꾼다
사랑같은 마음 닦아보려고....

공홀히 여깁으로 시작해 우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에로스적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요. 그는 이런 삶의 체험을 통해 두 아들(조이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얻고 아버지로서의 첫 경험을 시작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

홀과 우정, 이성간의 애정과 초월적 아가페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경험이 어우러진 완벽한 고찰이 가능했던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색깔을 즐겨라. 그러나 그 색깔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색깔을 가능케하는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위에 계심을 인정하라.”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꽃송이 피우는 하늘과 같은 사랑 가슴에 품어 그 사랑하고 싶어라며 뜨거운 애정으로 시작했다가 고운님 얼굴에 웃음꽃 피우게하는 잔잔한 우정으로 친해지다가 세상의 동지를 보듬는 하늘처럼 희어지는 머리결을 바라보는 공홀로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또 한 사람을 보고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 다음 아가페로 가는 길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성정으로 오늘도 크고 작게 다투는 우리는, 그러나 초월자로부터 비취지는 서광 때문에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 세상이 온갖 예쁜 색으로 물들

어있음을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봄의 한복판으로 성큼 들어서면서 묻습니다. 당신에겐 어떤 사랑이라도 지금 있으십니까?



서미숙 기자

■ 주안에말씀 간증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며”



세상적인 복을 받고 가족건강과 물질의 풍부함을 얻고자 시작된 나의 믿음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의 안락을 위한 믿음생활... 믿음의 유산이 없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의 믿음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렇게 자주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진리

의 말씀을 읽히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이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싶었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성경통독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다른 사람이 배 타니 나도 타야지 하는 마음으로 통독 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목적 없는 시작이어서인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시작했음에도 아버지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번 통독 때 그전에 읽었던 말씀들이 하나둘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는 아버지의 사랑에 참 감사했습니다. 성경통독 훈련을 통하여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고 충실하게 믿음의 선진들이 가셨던 그 길을 겸손함으로 본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느끼는 자녀가 되는 훈련이기를 기도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믿음이지만 이번 성경통독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마다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체들 속에서 부대끼게 하시며 우리를 갈고 닦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길 소망해봅니다.



최미금 집사

■ 교구탐방/ 벨리채플 1교구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

처음엔 서먹서먹했던 교구 식구들이 교구 예배와 교구 찬양을 준비하며 훈훈한 정을 나눔으로 이제는 서로에게 마음 문이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예배로 모이게 되면, 한 달 간 삶의 터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털어 놓고 나누게 됩니다. 모두가 내 일처럼 기뻐하고 아파하며 서로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마음껏 축복해 주는 이 작은 모임이 그리스도의 교제와 사랑이 있는 작은 교회,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함께 나누는 동안,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연히 체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입술로 간증하는 구역원들을 볼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주일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최근 대심방 기간을 맞아 이번 구역예배는 교구 담당 양국민 전도사님께서 교구 식구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과 기도로 심방예배를 드려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가장 어른이신 권정숙 권사님께서서는 교구를 위해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구역원들에게 손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며 구역을 사랑하는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맛있는 중국요리를 준비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교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롬 12:4-5)

교구원 한사람 한사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교구가 행복해지고 부흥하게 됨을 이번 교구 찬양을 준비하며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선우 집사님은 성가대 지휘로 바쁘신 중에도 직접 찬양을 골라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은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자택을 가까이 오르게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함께 연습을 하면서 우리 교구 식구들은 몰라보게 가까워졌으며, 또 잘 몰랐던 찬양을 서로 배워가며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드리는 헌신과 사랑이 모여 구역과 교구가 그리고 우리 주안예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리라 여겨집니다.

| 김선자 권사 |



■ 구역모임 요리 팁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 후,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 무슨 메뉴로 정할까 고민이 된다. 누구보다 교우들을 자주 초대하는 박창신 집사님, 케이터링이 편하지만 늘 손수 만든 음식을 내놓는 집사님의 실전 요리 레서피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가지 치즈 오븐 구이



1. 재료 (8인분 기준)

가지 2 파운드 (서양가지 큰 것 2개), 소금 약간, 껍질 벗긴 토마토 통조림 1통 (28온스), 마늘 한쪽 다진 것, 올리브 오일, 후춧가루, 밀가루 1/2 컵, 빵가루 1/2 컵, 달걀 4개 (넓고 얇은 용기에 잘 풀어 둔다), 신선한 모짜렐라 치즈 1 1/2파운드(1/4인치 두께로 자른 것), 파마산(Parmesan) 치즈 1컵, 생(fresh) 바질(basil) 잎 1컵

2. 만드는 법

- 1 가지를 세로 방향으로 하여 1/4인치 두께로 자른다. 자른 가지를 구멍이 난 용기(소쿠리)에 가지런히 놓고 골고루 소금을 뿌린 후, 돌로 눌러 2시간 정도 물을 뺀다.
- 2 가지의 물을 빼는 동안 토마토 (통조림), 마늘, 올리브 오일 1/3컵, 소금 그리고 후춧가루를 섞어 놓는다.
- 3 넓고 얇은 용기에 밀가루와 빵가루를 잘 섞어 놓는다.
- 4 가지의 물이 빠지면 마른 행주(paper towel)로 물기를 닦고, 밀가루와 빵가루 섞은 것으로 먼저 옷을 입힌 후 풀어 놓은 달걀물로 다시 옷을 입혀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서 가지의 양면이 모두 황금색이 되도록 튀긴다.
- 5 Oven을 350도로 예열한다.
- 6 10x15인치 오븐용 유리용기 바닥에 토마토 소스 1컵을 간다. 그 위에 튀긴 가지 1/3를 놓고, 모짜렐라 치즈 1/2, 파마산 치즈 1/3, 바질잎 1/2를 순서대로 가지 위에 올린다.
- 7 6번 위에 다시 두 번째 켄(layer)을 만든다. 즉 튀긴 가지, 토마토 소스 1컵, 남은 모짜렐라 치즈, 파마산 치즈 남은 것 중 1/2, 남은 바질잎 그리고 튀긴 가지, 남아있는 토마토 소스, 파마산 치즈의 차례로 올린다.
- 8 오븐에서 치즈가 녹아 윗부분이 고동색이 될 때까지 굽는다(약 30분). 실온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후 상에 올린다.

● Garden Salad, Garlic Bread와 함께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 이 Recipe는 Simplyrecipe.com에서 찾아 번역하였습니다.



박창신 기자

■ 영화비평

하나님 없는 '노아방주' 씹씹

영화 "노아" 예고편을 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상과학영화에 버금가는 "기독교영화"가 부활절을 앞두고 개봉되는 줄 알고 설레었다. 반가운 마음에 자세히 들여다 보니 감독부터가 심상치 않다. 대런 아로노프스키감독은 전작 블랙스완에서 선과 악, 흑과 백, 빛과 어둠으로 극명하게 대립되는 이원론적 메시지를 전하더니 신작 노아를 통해 프리메이슨으로 대표되는 일루미나티 즉 사탄숭배적인 메시지를 전하기에 이른다. 선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선인가? 악은 정녕 악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인류의 구원은 누구로 부터 오는가? 등 우리 믿음의 근간을 건드리는 화두가 영화 전반에 깔려있다. 이런 영화가 기독교계의 아무런 반작용없이 개봉한다는 것이 의아할 따름이다.

역시나 일주일 앞서 개봉한 한국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노아"라는 제목 하나에 교회에서 단체관람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고 아무 사전지식 없이 잘 만들어진, 아이들도 좋아할 영화를 보려다 관람 후 혼란에 빠진 아이들의 반응에 낭패를 당한 크리스찬 부모들의 후기가 여기 저기에 올라왔다. Frozen을 이어 대박행진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지금 한박자 늦은 듯하지만 함께 짊고 넘어가 보고자 한다.

아로노프스키감독은 처음부터 누구나 다 아는 성경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오긴 했으나 본인의 성향 그대로 SF 다크 판타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논란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사실 그는 노골적으로 성경을 모독하고 있다.



영화는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진화론을 말한다. 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게 도와준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로 나온다. 이 타락한 천사는 선을 행하고 재구원을 받기도 한다.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도와 주기도 하는데 이는 꼭 잔인한 신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다 저주 받은 그리스 신화의 프리메이슨처럼 천사가 인간을 도우려다 저주를 받아 타락한 듯 보인다. 또한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가 된 가인과 달리, 셋의 후손에게 의인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징표를 영화에서는 사탄의 상징인 뱀의 허물로 묘사한다. 노아의 아버지의 팔에 감겨있던 것이 유산처럼 내려와 노아의 팔에 감겨있는 것을 보여주며 영화가 끝난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경문을 잘 때 그 손에 매는 끈처럼(신명기 6:4-9) 손에 매고 노아후손을 축복한다. 이렇게 의인 노아를 사탄의 후손이라고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 사탄숭배의 표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홍수직전 모든 동물이 쌍으로 방주에 타는 것과 다르게 뱀은 때를 지어 몰려와 방주에 산더미 처럼 들어오는 광경에서는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

경이다. 홍수 이후의 일들은 더욱 노골적이다. 영화에서 야웨는 노아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멸하려는 잔인한 신으로 표현되고 노아는 의인이 아닌 맹목적인 신념의 광기어린 사람에 불과해 보인다. 급기야 신의 명령에 따라 살인을 서슴치 않던 노아는 쌍둥이 손녀까지 죽이려 한다. 성경에서 므두셀라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쳤을 그 시절 사한폭탄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죽는 날이 곧 세상이 멸망한 그날이었다. 그러나 영화에서 그는 영적 지도자로 묘사되었고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라"라는 말을 남긴다. 그리하여 노아는 잔인한 신의 뜻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른 새로운 세상을 연 자비로운 인간이 된다. 무자비한 신과 인간애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 노아를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참된 길은 인간에게 속해있다는 뉴에이지 사상을 원없이 전달하는 이 영화를 나는 신성모독이라 말하고 싶다.

이 영화를 보면서 미국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한 이런 영화에 이렇다할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리를 되돌아 본다. 교회와 교회가 또 같은 교인끼리 이렇다 저렇다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거짓을 거짓이라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하는, 거짓이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왜 더욱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왜곡된 정보나 사상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한다. | 채은영 기자 |

주안에코우 비즈니스 소개

BDO | commercial wholesale lender
"The Bridge to Capital Markets"

Stella Son
Director

Main Office
4322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Downtown Office
1016 Towne Ave. #209-210
Los Angeles, CA 90021

Cell: 213.810.1230 Tel: 323.761.7505
Fax: 323.761.7507 stella.son@bdo.com
www.bdo.com Commercial Finance Lender License #603 J429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Cindy Lee | Vice President
C) 818.621.8949
[O] 818.881.2300 [F] 818.495.2508
[E] cindy.lee@newstarrealty.com
cindyfeetra@gmail.com
11259 Charworth St. Granada Hills, CA 91344
BREP: 01303681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Rambow
SELLING AUTOMOTIVE PRODUCTS SINCE 1989

Danny Yoo
President

1515 S. Santa Fe Ave
Los Angeles, CA 90021
☎ 213-627-9100
☎ 213-627-9685
🌐 rambowco@dannyoo.com

■ 간증

“실명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고원웅 집사

사랑하는 주안예교회 교우님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남미워십찬양(LAMP: Latin America Mission and Praise)’이라는 찬양팀의 3집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곡명은 “나는 믿네”이며,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 특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는 부분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 백내장(선천적으로 안구의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인해 12년 전 완전히 실명하게 되면서 제 인생의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지경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으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제 시력을 회복해 달라는, 간절했지만 제 의지로 가득찬 기도 밖에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력을 회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알팍한 제 욕심을 위장한 기도뿐이었기에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앞에 ‘


실명’이라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마도 존재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신의 나라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원망의 험한 산과 불안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저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실명 전의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 의지대로만 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했던 과거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지 않고 내가 높아지기만을 원했던 어리석은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하며 세상의 보이는 것들로 행복과 평안을 찾아 헤맸던 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 영과 마음을 깨끗이 쏟아낸 후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며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를 누리며 체험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실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저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을 증거하고 싶어졌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 있던 중,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사 하는 소원을 고백하게 하였고, 곧 이어 앞을 못보는 저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실 귀한 분들을 불러 주심으로 드럼과 전자기타 등의 악기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신 일입니다. 어느 정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자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여러 곳으로 인도하시며, 부족하지만 진실하고 간절한 신앙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섬리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까지 해 주셨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며 나만을 사랑했던 실명 전의 시간보다 실명 이후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된 지금이 훨씬 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비록 실명의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바다 위로 걷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주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실명이라는 완벽한 처방으로 저를 돌이키시고 제 삶을 새롭게 하셨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갈 때 함께 싸워주심으로 제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의 유익함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시기에 날마다 그 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렵니다. 할렐루야!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FD 1134

Daniel Ahn
Counselor
Cerritos & Norwalk

12325 E. Rosecrans Ave. Tel: 562.868.0788
Norwalk, CA 90650 Cell: 213.507.1313
daniel@HankookMortuary.com Fax: 562.868.2808



Kyung (Kenny) Kim
Financial Services Representative
CA Insurance Lic. # 0C41666
Registered Representative
Investment Advisor
Representative

MetLife of Southern California
150 S. Los Robles Ave., Suite 750
Pasadena, CA 91101

Direct (626) 755-2181
Cell (818) 307-4894
Fax (626) 755-2169
kkim5@metlife.com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MILIC), New York, NY 10168.
Securities and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offered by MetLife Securities, Inc. (MSI) (FINRA/SIPC),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RIA) and (MSI) are MetLife Inc. companies.

인터넷 비즈니스



**월 2500달러 이상
올릴 수 있는 기회**

Tel: (213) 268-8711
Tel: (818) 943-9211

~ 성도님들의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

‘주안에’는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성도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명함 크기의 광고 문안을 제작하시어 문서국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국에서 광고 디자인을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금 구제현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익은 문서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주안예교회
비즈니스 소개



#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404장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이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천년 찬송가, 1959> 66장이 처음인데, 지금 가사는 <새 찬송가, 1962> 91장에 수정되어 실린 것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레데릭 레만 (FM, Lehman, 1868-1953) 목사가 1917년에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Pasadena)에서 작사, 작곡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소재지인 벨리에서 불과 십 수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사, 작곡을 하였다하니 더욱 정겨움이 앞서는군요.

레만목사는 시적 감각과 음악성을 겸비한 사람이었는데 설교 중에도 감동여린 찬송을 즐겨 불러서 성도들에게 설교 못지않은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작은 시골교회 목사인 그는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보수를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낮에는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 치즈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만목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치즈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며 한 장



의 신문을 남겼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펼쳐든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이 살며 느끼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히브리어로 표현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내 그 시에 사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찬양시 <하디무트(서곡)> 이었는데 그 뜻은 대강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땅위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아,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다.” 이것을 읽는 순간 레만목사는 깊은 감동을 받고 곧 펜을 들어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곤 퇴근 후 교회로 돌아와 자신이 작사한 찬양시에 곡을 붙여 완성한 다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1974년 스위스의 로잔에서 열린 ‘세계 순회복음 전도자 대회’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대회 이틀째 되는 저녁예배에 한 맹인 여가수가

특별 찬송을 하기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6.25 때 두 눈을 잃은 한국전쟁 고아로 미국에 입양되어 자라면서 각고 끝에 음악수업을 마친 한인 현역가수 “킴스”였습니다. 자그마한 몸매에서 흘러나오는 낭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레만’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맹인 여가수 ‘킴스’가 부르는 이 찬송은 그곳에 모였던 4,000명의 각국 대표들의 영혼을 울리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하였고 그로부터 이 찬송은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하는 유명한 곡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1절에서는 독생자를 내어 주실 정도로 2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만큼, 3절에서는 그 사랑이 인간의 언어와 사상, 나아가 자연사물을 뛰어넘는 실로 측량할 수조차없다고 레만목사는 썼습니다. 이 초월적 사랑에 감응한 그는 ‘가장 높은 것’ 과 ‘가장 넓은 것’ 을 묘사하는 ‘하늘’ 과 ‘바다’란 용어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레만 목사는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지 못하므로 단지 찬양할 뿐이라고 레만목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세건 기자

“주안에” 2014년 4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김경일, 김숙희, 조이 메기, 새라 리,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이재호, 이지혜, 조용대, 채은영 (기자)
김다슬, 안동윤, 브라이언 조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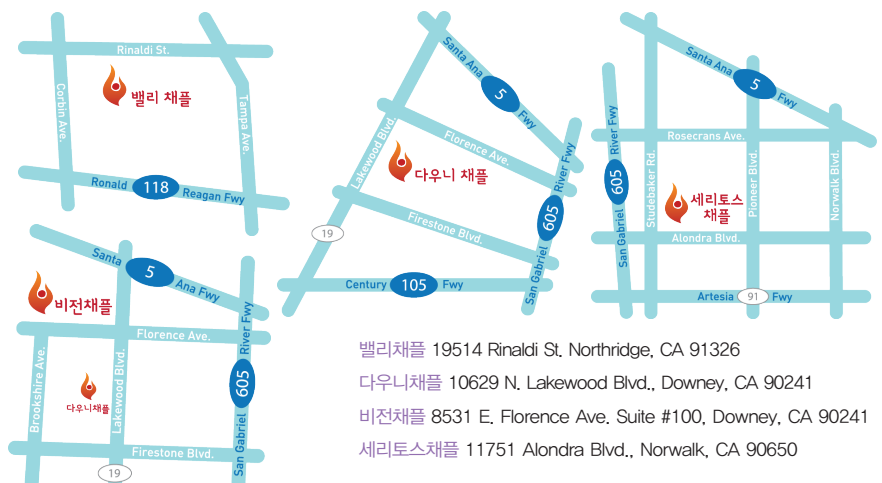
세리토스채플 / 오전 8:00, 10:00
벨리채플 / 오전 10:00, 11: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다운니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벨리채플

새벽 예배

벨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다운니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벨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다운니채플 10629 N. Lakewood Blvd., Downey, CA 90241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1

세리토스채플 11751 Alondra Blvd., Norwalk, CA 90650